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

연간 암 관련 수술 14,000여건에 달해
철저한 환자중심 진료 프로그램 시행
암 퇴치 신물질 개발 등 세계 최고 수준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는 미국 1800여개 종합병원 가운데 암 의학분야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암 치료 전문병원이다.

1884년 메모리얼 암전문 센터의 전신인 뉴욕 암병원 설립을 시발로 1948년 암 중심의 혁신적인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슬론-케터링 연구소의 개관을 계기로 세계적인 암 연구·치료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했다. 특히 1960년 메모리얼센터와 슬론-케터링연구소를 하나로 결합함에 따라 지금까지 세계적인 암 치료분야의 리더로써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암센터는 전공의를 제외한 600여명의 의무직 스태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최초이자 최대의 암센터로 인근의 코넬의 과대학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의 의사 및 연구자들은 대부분 코넬의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병리학의 태두 가운데 한 명인 James Ewing과 라듐을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Marie Curie가 슬론 케터링 암 센터 출신이며, 현재의 원장은 역시 노벨상 수상자이며 전임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이었던 Harold Varmus가 맡고 있다.

한편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는 지난해 10월 진료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원자력의학원의 개원 40주년을 맞아 제1회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바 있다. 기초 암연구(Basic Cancer Research)와 폐암(Lung Cancer), 그리고 대장암(Colorectal Cancer)의 주제로 진행된 컨퍼

런스에는 Thomas J. Fahey 수석부원장을 비롯, Zvi Fuks 의무부 부원장, Mark G. Kris 흉부종양내과 과장, 방사선 생물리학의 거장 C. Clifton Ling 등, 9명 모두 일급 학술지에 무수히 이름을 올린 세계적인 석학들로서 기초 및 임상 암연구의 최신 결과들을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인가?

▼입원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7-8일 - 암 환자의 입원 일 수는 평균 7-8일 정도이며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를 권하는 편이다. 외국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병원 인근에 마련되어 있고 수시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연간 암 관련 수술 14000여건 = 연간 암 관련 수술을 13,500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화학 요법과 각종 환자를 위한 진료 및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한해에 평균 33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매년 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 세계 최초로 암 세포를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진료 방법의 개발에서부터 화학요법을 통한 진료 및 암 퇴치를 위한 신물질 개발 등의 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

▼협력 진료 지향 = 환자 진료 시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진료 보다는 전문 의료팀의 협력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진료 방법을 제공한다.

▼환자중심의 진료 프로그램 = MSKCC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상에서 암을 퇴치하여 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암 진료를 위

한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 외에 환자 및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정신 상담 서비스에서 요가, 명상, 음악 치료법등 환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첨단 암치료센터 뉴욕 할렘구역에 설립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는 흑백인간에 암 발건과 생존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자극, 흑인 거주지구인 할렘에 암 예방 및 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할렘 구역 암센터는 500만달러를 기증한 패션 디자이너 램프 로런의 회사 이름을 따서 '램프 로런 암예방치료센터'로 명명되게 된다.

슬론-케터링 암센터의 가장 저명한 의사들 상당수는 할렘구역에 새로 설립되는 암예방치료센터를 도울 예정이다. 할렘 암센터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약 시험이나 다른 치료를 위해 슬론-케터링 암센터로 넘겨지기도 한다.

해럴드 버머스 슬론-케터링 암센터 소장은 '뉴욕시에 봉사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만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버머스 소장파 해럴드 프리먼 노스 제너럴 허스피탈 원장은 노스 병원이 암을 진단, 가능한 한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암센터가 설립되는 할렘 구역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먼 원장은 '할렘 구역 주민 41%가 가난하며 빈곤이 일단의 복잡한 인간환경을 일으켜 뒤늦게 진단을 하게 한다'면서 '장애 없이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이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주)아이리치코리아/http://richkorea.com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 센터는...

●“난소암 초기에도 증세 있다” 최초 규명



뚜렷하고 특징적인 증세가 없어 진단되었을 때는 말기인 경우가 대부분

인 난소암은 초기단계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증세가 있으며 따라서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최초로 규명했다.

암센터의 새러 울손 박사는 난소암의 증세는 건강한 여성에게도 흔히 나타날 정도로 모호하고 특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난소암인 경우는 증세의 빈도가 잦고 증세의 성격도 약간 다르다고 밝혔다. 울손 박

사는 난소암 환자 168명과 비슷한 연령의 건강한 여성 251명을 대상으로 난소암의 증세일 수 있는 복부팽만감, 복통, 구토, 무력증, 요통 등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조사분석한 결과 구토의 경우만 제외하고 난소암 환자가 그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울손 박사는 또 같은 증세라도 난소암 환자와 건강한 여성사이에는 그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복부팽만감의 경우 건강한 여성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난소암 환자는 지속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난소암은 일찍 발견만 하면 회복전망은 양호한 편이지만 조기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난소암의 일반적인 증세인 복부팽만감과 위장장애는 다른 이유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난소암은 대부분 말기에 이르러서야 진단되며 이 때는 5년 생존율이 매우 낮다. 미국의 경우 매년 약2만3

천명의 난소암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1만4천명이 사망하고 있다.

●생약제제·식이보급제 최신 웹사이트 운영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는 135종의 생약제제와 식이보급성분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www.mskcc.org/mskcc/html/11570.cfm를 오픈,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각 정보에는 관련 의학논문에 대한 요약과 비평을 게재하고 원문으로 링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10년간 대체약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금까지 이런 대체약물에 대한 최신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여는 웹사이트에는 135종의 생약제제와 식이보급성분이 학명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정리돼 있으며, 대중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아래에 기재했다.

이런 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의 상품명, 사용목적, 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 발생률,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경고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있다.